

[전체공지]

※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인 가정)
가정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언제나 더욱 '참된 인간적 성숙을 이루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제 10 차 미 동남부 성령대회

- 일시: 2019 년 9 월 1 일(주일) 1:30pm ~ 9 월 2 일(월) 5:00pm
- 장소: 애틀란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 주제: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 강사: 왕영수 프란치스코 신부, 안정호 이시도로 신부
- 참가비: 8 월 11 일 이전 등록시 \$30, 이후는 \$40

[잭슨빌]

- 성령대회 신청을 못하셨어도 참가를 원하시는 윤미임데레사 자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대회는 9/1 주일 오후 1:00 시작, 9/2 월요일 오후 5:00 마칩니다.
- 다음주 8/25 일 주일 미사중 손안드레아 형제님과 안나 자매님의 장남 크리스와 스테이시의 혼인축복과, 미사후 함께 축하하는 점심 대접이 있겠습니다. .

[게인즈빌]

- 다음주 (8/24) 미사후 전체식사가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 미동남부 성령대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재원원엘리사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성당에서 보조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타	총 계
게인즈빌	\$192	-	-	-	\$192
잭슨빌	\$245	\$150	\$500	\$500	\$1,395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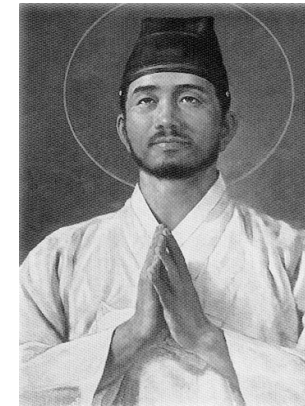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송재민 하상바로로 (904) 226-7191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352) 727-0452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앞두고 당신 마음의 내면을 관찰하도록 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내면에서 깨끗하게 씻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불은 벌써 땅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서 신자 공동체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이런 불의 시험을 겪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암시하시는 세례는 번민과 고난과 더할 수 없는 슬픔을 겪으신 뒤에 죽음에 잠기실 당신의 수난입니다.“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얻는 그런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해 주는 평화를 누리려면, 먼저 불을 통한 정화, 빛과 어둠, 악과 불의, 억압과 무관심, 거짓과 불의한 상황에서 안락한 생활에 맞선 선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대립 상황은 모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과 일관되기를 바라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유다교 회당이 나자렛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야로 고백한 모든 유다인에게 파문을 선언하였을 때(기원후 90 년 암니아 회의)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런 체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어떤 가족애와 물질 집착보다 하늘 나라의 가치를 첫자리로 놓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도록 제시합니다.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룩한 주 이 름

연중 제 20 주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38,4-6.8-10

<어찌자고 날 낚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

[화답송] 시편 40(39).2 가. 2 다-3.4.18(◎14 나)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 2 독서] 히브리서 12,1-4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8/17)	고승희 엘리사벳	백현 가브리엘	백진 프란체스카	-
	잭슨빌 (8/18)	서정원 헬레나	손활란 안나	최차숙 마리아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다 음 주	게인즈빌 (8/24)	고승희 엘리사벳	성충현 베드로	남궁은미 루치아	-
	잭슨빌 (8/25)	윤미임 데레사	김현희 아네스	송재민 하상바로	이교순 카타리나 이문자 모니카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건
게인즈빌	215	585	659	145
잭슨빌	34	342	180	31